



영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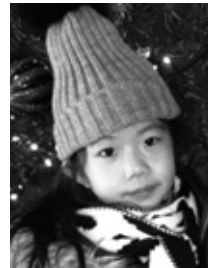
2018 / No.133



성탄절



-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성탄절예요
 -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대요
- 슬픈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려고 오셨대요



장시예(초등1부)

하필이면 왜 추운 겨울에 오셨을까요?
아마도 꿈꿨던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추운 겨울에 오셨을 거예요



02	성시	성탄절 · 장시예(초등1부)
04	말씀의 샘물	「잘 버립시다」(눅5:11) · 유상진 담임목사
06	해외선교훈련	북한접경지역 방문후기 · 최성기 장로
12		북한접경지역 방문기
18	해외선교	캄보디아 4-14세대 선교 · 신효현 장로
20	부모교육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 홍윤 권사
22	부흥사경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 강소영 권사
24	구역지도자 심화과정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 강미량 권사
25	제자반 후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 김지내(초등 2부)
26	아기학교	선물 같은 시간, 영암 아기학교!! · 이지영 집사
28	아기학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기학교 · 심진영 집사
30	성탄	성탄발표
32	선교지 소식	그때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양순식 선교사
34	일대일 제자양육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마음을... · 박인행 집사
35	찬송가 해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김혜림 집사
36	신임교역자 소개	변화의 한해를 보내고 만난 영암교회 · 이완희 전도사
37		고등부 많이 응원해 주세요 · 정현학 전도사
38	영화칼럼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다 · 강진구 안수집사(영화평론가)
40	교육관 리모델링	교육관 리모델링 완공
42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43	영암소식	



「잘 버립시다」(눅5:11)



유상진 담임목사

어김없이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지만 달력만 넘긴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 먼저 묵은해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버리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책상과 서랍에도, 옷걸이에 도, 주방 찬장에도, 창고에도 버리지 못해 모아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정리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물건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되지 않은 물건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리를 마음먹는다해도, 막상 정리를 실천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버리는 일입니다. 모아둔 물건에는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깃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버릴 것을 선별하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아 놓은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버릴 때 비로소 정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12:15)

버려야 할 것은 단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앙금도 버려야 하고, 굳어진 옛습관과 성품 그리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산다’는 책에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실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게 하려면 내 안에 자리잡은 헛된 자아부터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까

지 모아둔 삶의 만족과 행복도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으로 삶을 채우려면 불필요한 것부터 버려야합니다.

분주한 마음, 자주 화내던 습관, 생각없이 뱉던 불평과 탓,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는 욕심, 미루는 태도, 쓸데없이 많은 말, 과도한 생각과 염려, 미움과 시기, 상처와 억울함에 매여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피해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언어 등. 헛된 자아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쏟느라 예수님이 머무실 곳 없이 살던 정리되지 않은 삶을 돌아봅시다.

정리합시다. 헛된 자아를 버립시다. 예수님이 머무시도록 좀 더 단순하게 삽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말씀과 기도, 모이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청소의 시작이듯, 묵은해를 잘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부터 정리합시다. 헛된 자아를 버리는 훈련을 합시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합시다. **Y**



북한접경지역 방문후기



최성기 장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 37:5)

할렐루야! 마른 뼈들에 생기를 넣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생

각하며, 언젠가는 마른 뼈와 같은 북한땅을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망을 품고 30명(팀장 장지우 장로)의 북한 접경지역 통일선교훈련(이하 ‘선교훈련’이라 칭)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7년 동송교회 주관 8주간의 훈련과 2018년 영암교회 주관 5주간의 이론 교육을 배경으로 통일선교의 비전과 소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현장 훈련 프로그램이다.

독립운동과 항일 투쟁 역사의 현장, 연해주

낯선 땅 러시아 극동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다.

김동익 선교사의 연해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독립투사들의 활동과 항일 투쟁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연해주라는 설명은 우리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연해주가 회복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아픈 역사를 잊고 있었음을 반성하며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촌(새로 개척하여 정착한 고려인 마을)은 1870년부터 한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20여만명이 거주하는 거대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인들의 세력화를 우려한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 전까지 피땀으로 개척한 한인 거주지이며, 항일 투쟁

독립운동의 중추기지 역할을 한 곳이다. 특히 기독교계 인사들이 애국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대한광복군까지 조직하여 조국 해방운동을 활발하게 한 지역이기도 했다.

지금도 작은 건물의 기념관과 돌석상 3개(남, 북한과 고려인 상징)가 세워져 그 흔적을 기리고 있었으나, 다소 초라한 모습의 현장에 민족의 한맺힌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듯 하였다.

둘째 방문지인 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떨어진 연해주 제2의 도시이며, 고려인 독립동맹지이다. 두만강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항일투쟁과 사회 문제를 피해 이주해 살아온 최초 고려인 정착지라고 한다. 초기 고려인들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해 왔지만, 러일전쟁의 여파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항일 운동의 대부격인 최재형 선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출하게 되었고, 러시아인 부부를 만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권력가로서 뿐만아니라 축적한 부를 가지고 항일운동에 큰 역할을 한 애국 독립지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일 의병조직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의 선봉에 서서 큰 역할을 하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전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전달해 준 인물이기도 하였다.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많은 항일 운동가의 업적과 사진,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수리 강가에 쓸쓸히 서있는 헤이그 밀사 이상설 선생의 기념 비석은 새롭게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조국의 품에 잠들지 못하고 타국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민족의 애환이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중국 국경 폐쇄로 계획이 변경되어 크라스키노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지’에는 갈 수 없었지만, 11명의 동지와 함께 단지 동맹을 맺고 무명지를 절단하여 혈서를 쓰면서까지 구국에만 심혈을 기울인 애국지사들의 비참한 역사를 듣게 되었다.

이역만리 먼 이국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조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한 애국지사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연해주의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들 헌신으로 동토에 심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위치한 극동교회는 김동의 선교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김 선교사는 연해주에 있는 16개 가정교회의 선교사회 회장이기도 하였다. 2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80% 이상이 정교회로 구성된 러시아 사회에서 참으로 어렵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주일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준비해 간 특송을 하며

눈물과 감동으로 드린 예배는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신축하고 있는 성전이 이웃 정교회 주민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행비에서 적지않은 건축현금을 드리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리스크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는 함해노회에서 파견한 이상봉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로 마당 정원이 아름다운 가정교회였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되어 왔지만 열악한 선교 현장의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40여분 떨어진 손양센 지역에 성전 신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대순진리회가 식품공장을 세워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신축 계획중인 성전이 방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갈도



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 로다”(시133:1,3)

북한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혈몬산에 이슬처럼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백두산 천 지에도 내려 북한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연해주를 뒤로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중국 국경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버스로 장시간 이동하며 유상진 목사님과 김남균 목사님의 통일선교 강의가 진행되었다. 공안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고 선교활동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버스 안에서 예배와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북간도 지역, 두만강과 압록강 북중접경지역, 용정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역사, 선교사들이 돌보고 있는 탈북민들의 실상, 통북신학교, 최초 한글성경 번역한 문광서원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훈춘을 거쳐 중국 첫 기착지인 도문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어둑한 가운데 두만강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

에서 아침 두만강 맛이를 기대하며 잠을 청하였다. 이른아침 두만강변을 걸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북한땅이 50여미터 건너편에 보였다. 두만강변 새벽경건회 예배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며 우리의 형제가 사는 곳이지만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아 우리 모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방문한 도문 대교는 북한을 왕래하는 교량이었지만, 우리는 대교 중간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옆에서는 더 넓은 차선의 도문대교가 신축되고 있음을 볼 때 북중교류가 더 활발하게 계획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압록강은 두만강에 비해 강폭이 넓어 남성적 기상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특별히 준비한 배를 타고 북한 지역 가까이 접근하여 주민들의 생활 모습과 민둥산 아래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주민과 애뜻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흔들고 하트를 보내며 형제애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다.

유상진 목사님의 선상 경건회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북한 형제를 사랑하고 일당 독제체제에서 벗어나 부활의 삶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



도하였다.

평안북도 삭주군, 의주군을 거쳐 단동에 도착하여 끊어져 있는 단동단교를 걸으며 바라본 신의주는 조금 현대화되어 있는 듯 보였다. 평안북도는 고 황광은 목사님, 고 길리형 장로님, 고 이도명 장로님, 함께한 심상훈 장로님과 홍운 권사님 부모님의 출신 고향이란 말씀에 더욱 애잔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의 슬픈 역사는 7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복음 통일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아직도 숨쉬고 있는 북간도 지역 애국지사들의 발자취

일제 시대의 건물 잔재가 있는 연길을 지나 북간도 지역의 대표 도시 용정을 방문하였다.

용정은 해란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담겨있는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인이며 항일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명동촌(한국인 집단 거주지), 대성중학교와 명동학교(김약연 초대 교장은 윤동주 시인의 외숙부이며 평양신학교 졸업)의 옛터, 그리고 기록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반일 인재를 양성하였고, 연변지역에서 반일 시위운동을 하며 항일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생생한 현장을 보았다. 조국을 위해 대가없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헌신의 참 뜻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잊혀져 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다음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어서 '선구자' 가사에 나오는 일송정(소나무가 정자다운 모습)을 올라 바라 본 해란강은 민족의 아픈 역사와는 달리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함께 선구자 노래를 부르며 역사에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역사가 없이는 현재가 없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중국 당국의 동북공정 정책은 윤동주 시인을 조선



족으로 거짓소개하고 있었으며, 선구자 시비의 지워진 글귀 대신에 다른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었고,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우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의 出海(출해)정책으로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반드시 두만강을 통해 바다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북방 지역은 주요한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었다.

애 장엄하고 청아한 백두산 천지

이도백하에 도착하여 민족의 정기를 듬뿍 안고 있는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며, 특히 추위에 대비하여 무장을 하였다.

북파로 올라 가는 코스는 남성적인 웅장함에 백두산의미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는데, 정상 바로 밑까지 셔틀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었다. 때 이른 눈이 백두산 전체를 덮고 있었다.

입고 간 겨울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맑고 청명하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스라엘 혈몬산에 내린 이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백두산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남북이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다.

유상진 목사님의 정상 경건회와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며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한을 공홀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민족의 자부심을 무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선교의 현장

영락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통북신학교는 중국 북방지역과 서부 티벳지역 및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신학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한족과 조선족을 상대로 신학생을 양성하고 있었으나, 당국의 감시와 다른 직업 선호 현상으로 신학생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곡유봉 담임목사님의 설명에 선교현장의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지금까지 배출한 200여명의 신학생중

조선족 안목사(1기 출신)가 사역하고 있는 동풍처소(동북지역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탈북민 자매와 그 자녀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보기 위해 긴장하며 준비하였지만, 사드 여파로 중국 당국의 감시가 심해져 방문이 취소되었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모아 대신 전해 드리도록 하였다.

연길, 단둥, 심양지역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당국의 감시와 종교 탄압으로 십자가가 무너지고 선교사는 추방당하는 등 핍박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희생한 사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

최초 한글 성경 번역의 현장, 문광서원

문광서원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10여년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지방에

와서 조선인과 한족을 상대로 선교를 한 곳이다.

아기 출산의 후유증으로 두달만에 아내를 잃고 혼자 아기를 돌보며 조선인을 통해 한글을 깨우치고 최초로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된다. 조선 선교를 위해 먼저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초로 ‘하나님’이란 용어를 창시하였으며, 한국어 단어집과 문법집을 만들어 역사책을 저술할 정도로 한글에 능통하였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최초 조선인 교회인 집안지역의 이양자교회에서 서상륜 외 69명이 세례를 받고 서상륜이 조선에 들어와서 최초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들어와 ‘나는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벌써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조선은 이미 중국을 통해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세운 동관교회는 문광서원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2만여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되어 감사가 밀려왔다.

우리나라 복음의 열매는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의 역사이자 선물임을 마음깊이 깨닫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6~17)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오직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과 아울러 비전 트립의 소중한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위험은 뒤로하고 북방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현장을 보며 많은 도전의 기회가 되어 감사를 드린다.

북중접경지역을 바라보며 애뜻한 심정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안고 더욱 기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인권회복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아픈 역사의 사실 앞에 무관심했던 우리를 되돌아보고, 둘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지금까지 무임승차해 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영암의 다음세대는 더 나은 기회를 통해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건강하게 계승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교훈련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

북한접경지역 방문기

1. 신한촌(고려인 거주지역) - 심상훈장로

한인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눈물어린 동토의 땅, 그곳으로 강제집단 이주되어 정착했었던 척박한 땅, 항일 민족 지사들의 집결지였으며 해외독립운동의 중추기 지이기도 했던 ‘신한촌’을 방문, 다행히 최근 몇 해 전에 세웠다는 세 개의 크고 높은 돌 기념비(고려인, 북한인, 남한인을 상징)로 과거의 흔적을 헤아릴 수 있었다. 하여 근 몇 년 전부터는 많은 선교팀과 탐방객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기념비 외엔 아무것도 없었으나 김동익선교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지나간 아픔의 역사를 익히 짐작할 수 있었다.

1937년 10월부터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15만 명을 기차에 태워 집단 이주 시키고자 6차례로 나누어 집결시켜 모이게 했던 ‘혁명광장’을 갔다.

넓은 광장의 이곳 저곳을 걸으며 이곳 역시 우리 선조들의 ‘한’맺힌 통곡의 눈물을 모으면 아마도 강물만큼 되었으리라 상상되었다. 아린 가슴을 안고 역시나 선조들의 유배지로도 악명을 날리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동쪽 종착역이며 시작점이기도 한 ‘블라디보

스톡역’을 구석 구석 둘러보았다. 참으로 길고긴 기차 차량들이 지금도 시베리아로 가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또다시 희망도 꿈도 모두 잃은 채 황망히 실려 갔을 선조들을 생각해보며 참으로 러시아 연해주는 발길 닿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민족의 한과 애환이 온 하늘, 온 땅 가득 서린 곳임에……。 뒤늦게 탐방 온 것이, 별로 관심 없었던 고려인들의 비참한 역사를 이제나마 알게 된 것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다.

2. 김동익 선교사와 극동교회 - 장지우장로, 이제숙집사

선교사님은 17년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오셨는데 극동교회를 개척하시어 무척 즐겁게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미희 사모님께서도 극동연방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 일하시며, 즐겁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임대 교회여서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이 일억 오천만원을 헌금하셔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 지금은 많이 진척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건축비의 애로사항을 듣고 성의 표시로 우



리팀에서 일천불을 현금하였다.

일정 중 주일을 맞아 극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김동익·유상진 목사님 두 분의 은혜로운 말씀과 훌륭한 무보수 통역사(러시아 여자 청년)가 있어 전혀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격일로 번갈아 가이드해 주셨는데 서로 자기가 더 낫지 않냐고 하시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다. 선교사님께서 버스 안에서 정교회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셨다. 중국 지역 가이드를 맡아주신 박국장님과 연결 지점인 12시간 거리 도문(방천)까지 동행해 주셨다. 선교사님께서는 다시 블라디보스톡까지 귀가 하셔야 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 이틀 밤을 도문에서 체류하시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귀국해서 알게 되었다. 교회 건축 중이라 건축 현장을 직접 관여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내시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우리를 극진하게 안내하며 섬겨주셔서 선교사님 내외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이었다.

3. 최재형 생가, 이상설 비석 - 홍윤권사

블라디보스톡에서 100km 떨어진 우수리스크 보르다르소코 38번지.....자녀등 직계가족 11명이 처형 및 총살을 당했고,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헌신짝처럼 모두 버리고 전 재산과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바친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님(러시아명: 최 페치카)!” 안중근열사의 바로 뒤에는 일심동체의 최재형과 단지동맹 11명(최재형님 집에서 손가락을 다 같이 끊은)이 있었기에 당당히 담대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할수 있었음에 구국 위한 두분의 위대한 우정과 깊은 나라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게 되었다.

한편 우수리스크의 솔빈강가 한적한 곳에 세워진 “이상설 순국자님”의 비석(유허비)을 대하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열사를 대동, 독립을 주장, 헌신하시다 47세 나이에 조국의 광복을 못보고 타계하시며 후손들에게 염치없으니 시신을 불태워 시베리아 벌판에 뿌려달라 유언하신...뼈져린 두분의 과거의 고난사에서 섭리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뵈오며 현재와 미래의 이나라 조국땅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 존경하는 믿음의 선후배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중·고·청년들께.....

4. 예수 사랑교회 - 윤정연집사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예수사랑’ 교회는 이상봉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20명의 성도들과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새 성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170만명의 우수리스크 인구 70%를 차지하는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한글 공부를 통한 전도와 일대일 제자 교육을 하고 있고 문화 사업을 통한 복음 전도의 비전을 품고있다.

또한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처음으로 정착한 순양센 마을(현재 대순진리회가 직업창출로 장악한 열악한곳)에 개척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개척하는 사역을 온전히 기도와 순종,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 사랑 교회에서 러시아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5. 안중근의사 단지동맹지 - 안혜원 권사

1907년 7월의 “고종황제 퇴위”와 8월의 “대한제국군 강제해산” 후 9월 안중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 인촌으로 가서 의병부대에 가입, 참모중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1908년 7월 의병부대가 홍의동전투에서 대승했고 적군포로를 박애주의정신으로 석방한 후 의병부대 위치발각으로 공격받아서 대패했다.

국권회복에 기여할 특별단체의 필요성에 안중근은

자기생각을 행동화하려고 러시아 크라스키노(연추)로 이주, 독립운동가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최재형에게 도움을 받았다. 1909년 2월 7일 안중근과 11명 동지들이 연추에서 단지동맹을 맺고 왼손 무명지 관절 한개를 끊고 피로써 태극기 앞면에 ‘대한 독립’이라고 글자를 쓰며 구국에 헌신을 맹세하였다. 1909년 10월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고 1910년 3월26일 중국 여순에서 사형당했다.

6. 두만강 강변 새벽 경건회 - 엄난순권사

러시아를 떠나 불빛이 희미한 중국 땅 숙소에 도착하였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 다른 세상이 보였다. 독에는 코스모스가 화려하게 피어 있고 독을 따라 올라가니 백일홍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두만강은 강이라기 보다는 냇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가까운 북한을 끼고 흐르는 두만강을 볼 수 있는데 70년 동안 멀게만 느꼈던 곳이다.

중국은 국경에 2010년~2013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국경이 되었다. 중국은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등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 보다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으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재중 동포들은 두만강을 “조선족의 과거와 오늘의 가장 충실한 견증자, 눈물의 강, 역

사의 강, 승리의 강, 행복의 강, 친선의 강” 이라고 부르고 있다. 새벽 두만강 강가에 앉아서 아침 경건회를 하였다. 유상진 목사님의 시편137편 1~5절의 말씀으로... 시편137편 1편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둘러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씀과 같이, 눈물의 기도과 시온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영적회복이 일어나길 영망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통일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며 모두 다 북한에 있는 우리형제 자매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북한과 중국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과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알게 되었다. 들꽃 같은 열정으로 민족·나라·신앙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선조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보다 다음 세대에게 북·중·러 비전 트립의 기회가 주어져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시 한번 이번 선교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영암 공동체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7. 도문대교 위에서 - 송회락장로

두만강 하류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





도문대교 위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문광장의 큰 조형물에 출해(出海)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서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방천에서 동해까지는 불과 20-30km 밖에 되지 않으며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며 이미 철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길 밖에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8.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며 - 강미량권사

윤동주는 용정시 명동촌을 개척하여 민족교육과 반일 투쟁에 앞장섰으며 독실한 기독교 장로이신 윤하현의 손자이며 우리 민족의 애국시인입니다.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은 항일과 통일운동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의 중요한 기지이며 조선족 이주민들이 개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진행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생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슬픈 역사를 품은 이 곳에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나라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초가을 따스한 햇볕에 정겨운 코스모스와 백일홍으로 우리 선교팀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해주셨습니다.

9. 明東촌과 明東학교와 김약연 - 장지우장로

러시아 연해주와 더불어 북간도는 조선 말기에 새로운 삶을 위한 신천지였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 광복을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의 중심 무대가 된 곳이다. 그 대표적인 조선인 이주 개척촌이 명동촌이다. 명동촌은 김약연님을 비롯한 다섯 가문 150여명의 집단이 1899년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넘어 북간도로 이주 하여 형성된 한인촌이다. 이 명동촌에서 1908년 김약연님 등이 명동학교를 설립하시어, 북간도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정재연 교사의 영입으로 기독교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명동학교를 조선 독립 운동의 소굴이라 지목되어, 일제에 의하여 1920년 학교 소각, 김약연 교장 구속, 1925년 폐교되기 까지 17년간 윤동주 순국 시인, 문익환 목사 등 1200여명의 애국 청년을 배출하게 된다. 최재형님이 연해주에서 항일 민족 운동의 대부이신 것처럼 김약연님은 북간도에서 민족 교육의 선각자요, 항일 독립투사시다. 그리고 훗날 뒤늦게 목사가 되어 명동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이 깃든 터를 돌아보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뼈 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10. 일송정, 해란강을 다녀와서 - 정연안장로, 이현철 집사
일송정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해란강을 바라보면서 선교 팀 모두가 선구자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



었는데 마음이 몽클해지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그 당시 선열들의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일송정 비석 옆면 바위에 바로 얼마전 까지도 새겨져 있던 일송정 노래 가사가 지워진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3/4, 수풍댐의 1/2, 거의 대부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간도 땅도 다 빼앗아 간 저들이 아닌가? 이제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의 역사와 사람의 흔적마저도 지우려는 중국의 만행에 치솟는 울분을 삭히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다. 주님께서 이 민족의 한을 풀어 주시고 북한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정연안장로

발원지가 백두산인 해란강은 중국 동북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의 하나인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용정시를 대표하는 강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함께 품고 유유히 두만강을 지나 동해로 흘러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눈물로 노래했던 곳, 용정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암산 정상의 소나무가 바로 일송정입니다. 이번엔 저는 일송정을 오르면서 눈물로 빚어낸 선조들의 뉘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 지기를 기도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현철집사

11. 백두산천지(경건회) — 이광옥권사

늘 사진으로만 보던 백두산 천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번 오르면 두 번 볼 수 있어서 백두산이라는 말도 있던데,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에 흰 구름과 푸르고 아름다운 호수와 어우러진 웅장한 모습의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했지만 실제로 두 눈으로 보는 멋진 풍경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쉬운 점은 백두산의 사분의 삼이 중국소유이며 이름도 장백산이라고 바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사람들에 떠밀려 제대로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 동풍처소에 대하여 — 최성기장로

동풍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교회를 칭하는 은어이다. 시무하는 안00 목사는 심양에 있는 통북신학교 1회 출신으로 조선족이다. 은어로 대화해야 할 정도로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가 심해져 아쉽지만 방문 계획이 취소되어 직접가지는 못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인신매매단에 속아 중국시골의 불구자나 가난한 가정에 팔려 온 탈북민 자매와 그 자녀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

13. 압록강 북한지역 선상조망(경건회) - 양승배집사

압록강 중류의 수풍댐 인접지역을 출발해 신의주, 단둥방면으로 20km 남짓 1시간여 배로 이동을 하며 지척지간 북녘 땅인 삭주, 의주의 황량한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쉬움들이 줄곧 이어졌지만, 최근 남북의 화해 무드를 반영한 듯 간간이 북녘 땅의 동포들과 서로 손을 흔들고 정감을 나누며 민족애를 확인할 때면 절로 콧등이 시큰해지곤 했다. 선상 경건회를 통해 통일 한국을 고대하면서 통일 선교, 북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영암교회의 북한접경지역 해외선교훈련팀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았다.

14. 신의주와 단둥 철교를 다녀와서 - 임수진권사

수풍댐이 바라보이는 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하류로 내려오는 동안 압록강 저편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여러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자유가 없는 3대 세습 독재자의 탄압과 너무나 험벗은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다. 강도를 당한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고 보살펴야 한다는 선상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북한 동포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다짐해 본다. 강 건너 보이는 신의주 인근 몇 개 안되는 공장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저녁에도 거의 불빛이 안 비치고 있어서 네온사인 불빛이 춤을 추는 단둥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저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15. 통북신학교에 대하여 - 정혜자집사

북한 선교와 중국 서북지방 선교 목적으로 1988년 영락교회가 지원하여 세운 신학교이다. 조선족과 한족을 교역자로 양성하는 신학교로 현재까지 200여명을 배출하였고 12기가 수강중에 있었다. 30여년간 시무하고 있는 곡유봉 목사(한족)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에 따라 젊은이들의 지원자가 줄어 들고 있는 것과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족이면서도 북한을 복음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비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16. 문광서원(존로스 선교사) - 이천순집사

존로스 선교사님과 메리 스튜어트 부인의 헌신과 한국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영원 무궁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한 민족의 복음과 대한민국의 통일 위에 펴박 받는다. 북한 동포의 가난하고 병든 낮은 자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Y



캄보디아 4-14세대 선교



신효현 장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시하누크빌에 있는 라이프대학교 (Life University)에서 국제경제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대학교는 12년 전에 구건희 선교사가 설립한 종합대학교로서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정부가 허가한 최초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따라서 대학 안에 여러학과가 있으며 특히 신학과가 있어 장차 주님의 일을 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학생들이 참석하는 채플 (chapel)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대학교는 현재 영어, 중국어, 한국어, 신학 등을 가르치는 인문대를 비롯하여 경영대, 간호대, 과학기술대, 공과대, 관광대등이 있으나 전체학생수는 500여명에 불과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라이프대학을 돕는 것이 교육을 통한 캄보디아 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를 받지 않는 자비량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주신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70세가 넘는 나이이지만 선교지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캄보디아로 간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지만은 캄보디아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크신 은혜와 기쁨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명희권사와 저는 주일에는 시골에 있는 오참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라이프대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지방 여러 곳에 개척한 교회중의 하나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이며 캄보디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교는 시급하지만 캄보디아인들의 민족성이나 종교관, 인생관 등에 비추어볼 때 사실 이들에 대한 선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컨대 과거 프랑스가 1863년부터 86년동안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전하였고 그후 미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96년 전에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였지만 현재 인구가 1500만명인 캄보디아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2%가 안되는 3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 보다는 나이 어린 학생층을 대상으로 선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더 나아가 그보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선교의 중점대상은 4-14세대입니다. 즉 4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선교는 교육선교, 특히 4세부터 1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적지 않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을 설립하여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 많은 유치원 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라이프대는 금년 10월에 개강하는 학기에는 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매우 잘한 결정으로 생각하며 기대가 큼니다. 유아교육과의 개설에는 한국기독교 유아교육연합회의 황금옥 회장(영암유치원 원장)이 지난 6월에 3명의 임원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유치원의 실정을 둘러본 후 교수과견 및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보조 의사를 밝힌 것이 큰 힘이 되었으며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상진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우리 교회가 해외선교에 더욱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난 8월초에 중등부 단기선교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캄보디아 선교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특히 라이프대학교와 유아교육과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있는 오참나교회, 오참나유치원의 부흥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Y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홍 윤 권사

먼저, 영암의 젊은 부모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유치부 황금옥권사님과 유아부 임영신전도사님 그리고 권세진목사님과 개회 때마다 기도로 격려해 주신 담임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사님의 귀한 말씀

만으로도 충분한데 매 주 융숭한 다과와 정성의 영양 도시락 또 어느 때는 맛나고 넉넉한 샌드위치까지..

정말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과 함께 부모교육에 참석하면서 내가 할머니가 아닌 젊은 시절의 어머니로 참석했었다면 내 아이들을 좀 더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잠깐 스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결혼생활 45년차가 되어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분가도 시킨 상황이지만 지난 시절을 되짚어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참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듣고 배운 것들을 손주들에게, 노부부가 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늘 접하는 주변사람들과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듣고, 서로 나누고 공감하면서 시간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던지...마지막 날 강사님께서 젊은 어머니들 속에 끼어있는 할머니인 제가 눈에 띄셨는지 교육받은 소감을 부탁하시더군요. 참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지만 젊은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안타까웠던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아울러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젊은 부모세대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요 시간이라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모교육이 매 년 2회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때마다 대략 30~35명 정도 참석들을 하시는데 매번 참석하신 어머니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로 오신 어머니들도 일단 한 번이라도 부모교육에 참석하시면 매 주 빠짐없이 오시게 되는데 부모교육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얼마나 유익한 내용인지 알게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웃고 울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는 숙제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참석하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고 오지만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기를 업고 안고 오시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해 보이던지...

또한 담당 전도사님과 헬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은 이렇게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담아 얼마나 반가이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는지 그 모습에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지 아주 큰 보화를 얻고 가는 듯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사 목사님 준비해 오신 ‘시’와 ‘글’을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다 함께 읽으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말씀내용을 접한 우리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글 내용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감동받은 글과 시를 소개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영암의 모든 어머니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은 꼬~옥 아래와 같이 자녀들을 키

우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었음을 나이를 더할수록 새삼 깨닫는 가운데 부디 자녀들을 행복하게 양육시키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자녀에 관하여]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칠레시인)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내일’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강소영 권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바보처럼, 참고, 기쁘게, 균형있게 살아야 한다’.

창세기 6장으로 시작해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믿는 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다.

첫 시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 근거의 말씀으로 창 6:1~8을 함께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 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세상과 다름을 실천해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침 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을 때에 잠잠히 계셨음을 상기시키셨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 댈 수 있는, 세상에서 오래 당연시하는 복수의 대응이 아닌 기꺼이 내어 주는 방법을 택하는 ‘다름’의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2:20의 말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말씀을 떠올렸다. 세상은 자신이 산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나는 없다. 그것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근본이자 전부이리라.

둘째 시간,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김목사님의 아버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이신 아버님의 믿음을 간증의 형식으로 나누어 주셨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겪었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 6:22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그 묵묵하고도 ‘바보 같은’, 하나님 경외함의 믿음을 나누었다. 그런데 나는 한편으로는 노아가 120년의 방주 제작의 삶에 조금이라도 노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넣어 ‘바보처럼’이 아닌 생각있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바보처럼 사는 길만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정도이자 지름길인 것을 방주를 제작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주를 제작하며 매일 믿음과 순종의 승리의 경험이 노아로 하여금 ‘바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

셋째 시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냈는데, 분명 참지 않고는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역시 ‘참고’ 사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말씀을 떠올린다. 예수님이 어디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군병들만 참으셨는가? 그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까지도 참으신 분 아닌가.

넷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방주에 들어가서 초기 얼마는 홍수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서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방주에 갇힌 답답함과 기다림에 힘들었을 것인데,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신 하나님, 노아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방주에서 마침내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나는 안다.

마지막 시간, 창9:4의 “그러나” 이 한 단어로 우리의 삶에 균형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홍수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을 균형이라 말씀하시며, 그 균형의 또 다른 예로,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윗이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준비를 해놓았던 것을 말씀하셨다.

매일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바보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삶은 분명 기쁨이 넘치리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뒤뚱거리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Y**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강미랑 권사

먼저 구역지도자 심화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초에 구역지도자반 심화과정을 권유받으면서 금방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여전도회협의회 회장일을 감당하면서 과연 심화과정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새해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박국3장 19절 말씀인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들어서 순종하며 심화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진 담임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구역공동체세우기에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시면서 그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과 수요일예배후에 구역에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지도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주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 목회 일정으로 바쁘신 목사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구역지도자 심화과정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구역지도자 심화과정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

에게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성경을 먹으라”는 교재의 나눔과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먹고 내면화하는 것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와 나누는 법,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흘러보내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공부라는 교재를 통해 기독교 핵심교리와 조직신학을 쉽게 가르쳐주셔서 자아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님이 우리 영암의 교회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나는 어떻게 교회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하는 지? 배우고 고민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릴 사랑하시며 영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도 얇은 경험으로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며 회개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화과정을 통해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보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조금씩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흘러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저희들을 가르치고 섬겨주신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고 김영표목사님 권세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훈련받고 배운대로 구역공동체에 잘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김지나(초등 2부)

이번 제자훈련의 주제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견학을 갔다. 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가지 못하고 민속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두 군데만 갔다.

민속박물관에서는 어가행렬 같은 축제와 옛날사람들의 의식주 등을 보았다.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굉장히 추워보였다. 옛날에는 한파가 왔을 때 어떻게 견뎌나 싶었다. 어가행렬은 그 시대 왕의 권력이 위대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가행렬은 보기에는 멋있었지만, 왕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민속박물관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처음보는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 다음에 또 간다면 역사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가야겠다.

전쟁기념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관해 살펴해보았다. 일제강점기 방에는 독립운동가, 일본군복, 한국군복(광복군복), 무기 등이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통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안중근, 유관순 등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면 온갖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25 전쟁에 관한 방은 무기, 군복 등이 있었다. 1950.6.25. 북한 남침 / 1950.6.27. 유엔군 참전 /

1950.9.15. 인천상륙작전 등 전쟁이 일어나게 된 순서도 있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며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전쟁기념관에 갔다 오고 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남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커져 전쟁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니…… 욕심은 참 무서운 것 같다.

제자훈련에서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렇게나마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 역사는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다. Y



선물 같은 시간, 영암 아기학교!!



이지영 집사

안녕하세요? 이제는 김윤서, 김호연의 엄마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지영입니다.

첫째 윤서와 아기학교를 간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호연이가 자라서 아기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이기도 하고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호연이와 엄마와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아기학교를 통해 그런 시간이 생기게 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16기 아기학교는 교회 사정상 5주로 축소해서 진행되었지만, 그 만큼 알차게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노원에 있는 ‘피노 파밀리아’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하늘 높이 서있는 커다란 피노키오를 쳐다보며 엄마들도 아이들도 흥분했습니다. 만화감상, 하늘기차타기, 종이인형극 관람, 피자만들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도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연이는 엄마와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엄마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가는 내내 엉덩이를 들쭉거리며 기분 좋게 교회로 향합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금방 자전거에서 내려야해서 아쉬움 가득한 얼굴이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환영과 맞이 간식 앞에서 자연스레 놀이를 했습니다.

매주 예배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선생님들이 리얼하고 생동감 있게 연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조그만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좋은 물고기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았던 것은 매주 들은 설교내용과 관련된 워크지와 만들기 재료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윤서 누나와 한번 더 설교이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서 혼자 거의 다 만들었지만 ㅋㅋ)

설교 후 음악선생님과 함께 음악 수업을 합니다. 매주 다른 악기를 관찰하고 연주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연이가 좋아하는 시간 중의 하나는 마사지 수업이었습니다. 활기차신 염미경 선생님께서 마사지를 하면 아이들이 180센티까지 자랄 수 있다고 외치시면서 생

동감 넘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연이의 몸통,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주면 호연이는 편안한 얼굴을 보이다가 새근새근 즐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와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편안해지는 호연이를 보면서 더 많이 안아줄 걸 하는 미안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저도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은 물론,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다 챙겨 주시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엄마들 편안하게 해 주신 별님 반 윤정연선생님 감사합니다. 눈으로도 맛있고 진짜 맛있는 건강식 간식을 만들어 주신 김치의 달인 오세경선생님, 유미영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섬세하게 돌보아 주신 모든 선생님 덕분에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목요일이 특별한 목요일이 되는 신나는 곳, 영암 아기학교입니다. 좋은 교회 환경,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호연이와 엄마의 믿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둘만의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엔 호연이가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그때 참여할 17기 아기학교도 기다려 집니다. Y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기학교



심진영 집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기학교. 아기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슈퍼우먼처럼 특별한 힘을 자랑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있는 우리 영암교회의 아기학교를 아시나요?

저는 2011년 3월 개교한 영암교회 아기학교의 창립멤버

이지만 1학기만 하고 직장으로 도망간...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와 또 한 학기만 하고 일터로 두 번이나 도망간 흉내만 낸 선생님입니다. 그런 제가 아기학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기학교를 섬기고 계신 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일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철저하게 노동의 댓가를 계산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 먼 곳에서부터 아침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른 시간부터 오시는 발걸음들이, 아기들이 가지고 놀 무거운 놀이기구를 마다않고 옮기고 닦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주 두 주를 보내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섬김이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기학교는 온돌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놀이도 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온돌바닥에서 앉고 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많이 힘이 들 법도 한데 힘든 내색도 없이 아가들의 웃음에 같이 입꼬리가 올라가 마냥 즐거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먼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헌신을...내 허리 아픈 것쯤은 별 것이 아니라는 듯 아이들을 안고 음악활동이며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제가 해보니 아기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곳이 없고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두 손 놓고 한 두 시간은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 자신들의 몸은 아끼지 않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불끈 불끈하시는 집사님들은 슈퍼우먼인가 싶기도 했는데 모두들 저와 같이 집으로 가시면 다 뺏으신다고... 어쩔 그리 아픈 내색, 힘든 내색도 없이 열정으로 하시는지...사명에서 나오는 힘이었나 봅니다.

자비로 좋은 맛사지를 배워 자격증까지 따서 가르치시는 집사님. 유머가 넘쳐서 어머니들에게 인기 짱이신 집사님. 아기들의 예쁜 모습을 카메라로 잘 담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편집 업로드하는 수고로운 손길...

아기들이 아기학교 등교시간에 맞춰 오느라 아침밥이 부실했을까 싶어 빵이나 떡으로 맛이 간식부터 아이들의 먹거리는 요리의 달인 권사님과 집사님이 맡아서 하십니다. 알레르기, 아토피가 있는 아기들을 위해 따로 식단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도 힘들다 한 마디 없으시고 음식 재료를 직접 갖고 오시느라 지하철, 버스 갈아타고 먼 길 오시는 권사님들,, 저는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좁은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옷이 다 배어도, 여러 가지 음식을 요리하느라 서로 부딪혀 불편해도 “내가 살을 더 빼야해!!” 하며 서로 웃어가며 요리하시는 분들. 아가들이 맛있게 먹는 지, 음식은 모자라지 않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시며 맛으로 모양으로 아가들의 영양을 담당하시는 간식팀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등교하는 아기들을 맞이 할 때면 한 명 한 명 안고 “이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길,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품에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은 아기들의 모습은 천사들입니다.

아기학교에서 가장 큰 중심은 놀이가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기간 동안에는 전도사님이 준비하여 주신 필독 도서를 통하여 아기들을 맞이할 영적준비를 합니다. 정신없이 놀이에 빠져 있던 아기들도 예배시간이 되면 모두 전도사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성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기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재물을 부리는 시간이지요. 아기들 눈 높이에 맞춰 대본을 준비하고 의상과 악세사리로 아기들의 시선을 모아 혼신의 연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들은 꼼짝도 않고 앉아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도 없이 믿는 아기들의 눈동자는 마치 보석과도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아기들이 오기 전에 먼저 ppt와 음악을 점검하십니다. 어찌나 완벽과 꼼꼼함을 추구하시는지 저는 진심으로 내 상사가 전도사님이 아니어서 정

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8년 동안 영암의 아기학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16회의 아기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함과 노련함이 분명 있겠지만, 매 학기 새로 맞이하는 아기들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늘 새롭고 두근거린다고 하십니다. 아기학교 교사들은 또한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기학교...

이처럼 아기학교가 영암교회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그 모든 일 가운데 애쓰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부장권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이 글에 담아 봅니다. 제가 아기학교 교사로 또 언제 다시 복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아기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Y



성탄 발표





그때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 티어룻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티어룻전도사님은 지난 메콩강에 위치한 섬에 있는 즐거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저와는 4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굴도 볼겸 내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사모님과 티어리까도 함께 나오세요”

여름 사역 이후에 바쁜 일정으로 통 만나지를 못하던 차에 멋진 저녁을 사주고 싶어서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안부를 묻고 딸 티어리까를 안아주고 있으니 전도사님이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저녁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 때 목사님, 사모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티어룻전도사 부부와 함께 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첫 해의 일입니다. 점심부터 퍼부듯 쏟아지던 장대비가 그치고 훗하는 습기에 숨이 턱 막히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시작한지 6개월 즈음에 유치원의 부감을 맡고 있던 전도사사모가 강인애선교사에게 이것저것 불평을 한바탕 쏘아 부쳤습니다. 전도사님 부부가 아침부터 잔뜩 화가 나있었습니다. 담당선

교사로서 전도사부부에게 교회와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던 중에 티어룻전도사님이 갑자기 금방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연신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써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기인 즉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쌀을 사주기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비워야 하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서 더 이상 저의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뱃을 놓고 앉아 있으니, 사모에게서 한참이나 수모를 겪은 강인애선교사가 가방을 들며 전도사부부를 내보내고 다른 사역자를 청빙하면 되니 그만 나가자고 합니다. 두 부부의 감정이 격양되어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나를 잘 대해주고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찌다가 조카보다 어린 전도사에게 이런 수모를 만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을 감고 생각하는 중에 불현듯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감았던 다시 눈을 다시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도사님 부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몰라서 저러는 구나!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부부를 가까이 불러 앉히고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먹는 쌀과 전도사님 부부가 즐겨 먹는 쌀의 종류가 달라서 쌀 대신 사레비에 성미비를 포함하여 드렸고, 전도사로 부임한지 2개월 만에 출산을 하여 사레비도 대폭 올려

드렸고, 가전제품도 연말에 구입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는 1년간 강인애선교사 지도하에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전도사님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하여 얼굴이 빨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덜 풀린 강인애선교사에게 한 사람을 얻으려면 오늘보다 더 심한 일도 겪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다시 받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는데, 저의 말이 맞는데,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전도사님 부부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과를 했습니다. 저와 강인애선교사는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 지는 감동과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전도사부부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12월 3일에 리다(즐거운유치원 교사, 청년부)가 결혼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 당연히 주례를 해야지!”

“주례하실 때, 목사 가운과 후드를 입어주세요! 동네에서 첫 기독교 결혼식이라 격식을 갖추어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태어나면 절에 가서 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오고,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절에서 복을 빌며, 대부분 불교식으로 거행되는 결혼식은 온갖 우상과 미신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세례를 받은 청년들도 허다하게 부모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불교식 결혼식을 치룹니다.

티어룻전도사님 부부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목회의 열매가 메콩강 섬에서 치러진 첫 기독교 결혼식입니다. 티어룻전도사님 부부의 고백처럼 그날 저희 부부가 참지 않았더라면 아니 주님께서 그 순간 그 말씀으로 저를 불드시지 않으셨더라면 티어룻 부부의 성숙도, 목회적 열매도, 기독교결혼식도 없었을 테지요.

주님!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2018년 성탄즈음에 캄보디아 양순식,강인애 Y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마음을...



박인행 집사

지난 십년 간 큐티를 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큐티모임이 끝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세상 염려로 스르르 말씀의 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으로 단련되어 왔다고 생각했던 영적 근육은 서서히 약해져서 몸과 영의 고단함이 더해졌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세로 불안과 자책이 밀려오면서 영적 균형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큐티 방장님께서부터 일대일 양육을 권유받아 흔쾌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하던 큐티와 달리 일대일 양육은 단 둘이 긴밀한 교제와, 정해진 분량의 숙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는 숙제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라 느껴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교제도 부담스러워져 양육받는 것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주간 고민하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저의 양육자이신 손태경 권사님은 너무도 친절하고 자상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마음속에서 쿡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쉽고 편하게 숨을 수 있는 염려의 지하 통로로 말씀이 줄줄 새어버리고 마른 땅에서 이정표를 잃은 낮설은 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께서서는 시간과 숙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여유롭게 진행하자고 하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일상을 쪼개어 아주 조금씩 억지로 하지 않고 단 한 줄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 필사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이 두 줄 되고, 두 줄은 곧 한 장, 두 장이 되었습니다. 실제 교제의 숙제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제게는 버거웠었으니, 혹여 다른 성도님들은 오해 없으시길 알려드립니다.

점차 말씀의 근육이 생겨나며, 하나님 안에서 권사님을 통해 사랑과 살림을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형편에 따라 교제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여 다른 분들에 비해 갑절의 시간이 걸렸지만 양육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늘 밝게 웃으시며, 권사님의 자녀를 잘 돌보시고,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들과 수 많은 양육자들을 정성으로 살피시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하고 어디서 저 기쁨이 샘솟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늘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그 말씀을 흘려 보내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명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전쟁과, 그 속에서 이웃 엄마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저에게도 누군가의 살림이 필요했다는 것을, 또한 막힘없이 흐르는 성령이 없다면 건강하던 영육의 모습은 금세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고 기다리는 마음,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큐티 나눔, 일대일 양육... 다양한 모습으로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과 주머니 속에 늘 숨겨두었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을 결심해봅니다.

부족함에 자책하던 저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깨워준 신 손 권사님! 늘 살피고 나누시는 손길에 깊은 감사와 주님의 갚아주시는 축복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Y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김혜림 집사

민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찾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캐럴 소리 가득한 12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천 년 전 베들레헴, 성탄의 밤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은 양 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축복받은 그 베들레헴 땅을 기억하며 많은 작가들이 곡을 썼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도 그중 한 곡으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스 부룩스 목사가 작시하고,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이며 오르간 주자였던 루이스 헨리 레너드가 작곡한 곡입니다.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강한 경건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아들에게 찬송 가사를 외우도록 해, 대학 들어갈 무렵 목사님은 200여 편의 찬송 가사를 외웠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말씀에 맞는 찬송을 골라 부르며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직접 찬송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부룩스 목사님은 1865년 성지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세웠다는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서 성탄기념 예배를 드

리게 됐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의 긴 예배였지만 목사님은 이 예배를 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868년 12월, 성탄절 예배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 문득 예전 ‘예수탄생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기억과, 그곳의 양치는 목동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자 그때 받았던 감동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인 레드너를 불러 자신이 지은 찬송시에 곡을 붙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찬송시를 받은 레드너는 멜로디를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하나님께 곡을 달라고 기도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됐고, 잠이 깨자마자 그 노래를 악보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정을 통해 탄생된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 찬송은 드디어 1868년 성탄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의해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이제는 12월이 돼도 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힘들니다. 음악 저작권 때문인데요, 성탄절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리마다 크게 울려 퍼지던 그때가 그리웁습니다. 부디 교회 안에서라도 아름다운 음악이 많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Y**

*김혜림 집사님은 토요일 5시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라디오의 찬송교실을 진행하면서 소망교회 성가대, 수원 청소년 합창단,

CTS 콘서트 콰이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한해를 보내고 만난 영암교회



이완희 전도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공동체를 섬기게 된 이완희 전도사입니다. 제가 부임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오가며 뵈었던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암교회는 저의 어릴 적 모교의 분위기와 비슷해서 더 정감이 가고 친근하게 느껴져 참 좋습니다.

영암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저에 대해서 소개할지 고민해봅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나눈다면 가장 저를 잘 알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 저의 근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2018년은 많은 삶의 변화와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5~7세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월에는 새로운 준전임 사역지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암교회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삶에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두 번째 추석을 보내며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아빠가 된다는 설렘 반, 낯설음 반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내가 계류유산했다는 진단을 받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 더 속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의 수술 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저희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 깨닫

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현재 장로회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3년간의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더 공부해야 할 것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졸업하게 되어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건과 학문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Y

고등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현학 전도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여러분! 지난 11월부터 고등부에서 섬기게 된 정현학 전도사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을 소개하던 사람인데 막상 저를 소개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이제 겨우 20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잘 안다고 말하기엔 한참 어리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한달여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답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름마다 반침이 들어가서 발음하기 까다롭다는 이야기와 ‘현학적’이라는 관형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술귀 鉉에 배울 孺을 사용해서, 술의 귀처럼 중요한 것을 배우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고, 배우고 있지요.

그리고, 저는 유학10년차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학창시절을 지내다가 대학 때문에 상경해서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교회로 오기 직전까지는 상도동에 있는 남현교회에서 아동2부 교육전도사로 약 2년간 섬겼구요, 다가올 2월에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좀 더 깊은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곳, 영암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이라 표현했지만, 아직 낯설기는 해서 낯선 환경을 맞닥뜨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덕분에 금방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설익은 밥이 익으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 그렇게 익은 밥이 유익한 식사가 되듯 저도 적응하는 시간동안 잘 익어서 함께하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밥을 제공하는 좋은 공동체를 꿈꿉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께 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가 함께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다 - 앤드류 아이엇(Andrew Hyatt) 감독의 영화 '바울' -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바울과 로마의 순교자들

〈바울〉(Paul, Apostle of Christ)은 성서영화(Bible Cinema)의 전통에 충실한 기독교영화다.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의 생애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언행이 시각적 언어로 펼쳐진다. 할리우드가 만든 성서 영화처럼 로마시대의 전경

과 사건들이 역사의 현장으로 관객을 인도하고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실한 믿음은 기독교 관객을 감동으로 이끈다.

영화 〈바울〉에서 관객이 지켜 본 가장 큰 미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난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바울의 '성경적 방식'이며, 둘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고, 셋째는 누가의 의로행위에 나타난 신앙과 지성의 통합적 이해 방식이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관객들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인간 촛대'의 순교현장을 접하게 된다. 로마제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타키투스(Tacitus, 56?~120?)는 14년에서 68년 사이의 로마 역사를 다룬 〈연대기〉(Annals)에서 네로가 광적인 잔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연대기〉속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순교 장면 가운데는 십자가의 처형뿐만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겨 죽기도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진 후 로마의 거리 곳곳마다 화형에 처해져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겪었을 시련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깨

닫게 한다.

로마의 골목 곳곳마다 나무에 매달려 산 채로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고난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로마의 어둠을 밝힌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었다'는 역사의 기록은 사실이며 또한 진실된 신앙의 결과였다. 가로등이 없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촛대'라는 순교방식을 통해 거리의 어둠을 밝혔고, 사랑과 봉사를 통해 부패하고 잔인한 로마인의 마음에서 어둠을 내쫓았다.

로마에 대한 복수와 저항의 의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솟구쳐 올랐을 때 영화 속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12:17)고 누가에게 전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율법에 미쳐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과거가 있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랑으로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누가에게 구술한 바울의 회상 장면은 사도 바울을 생애를 연대기로 처리한 과거의 영화와 달리 매우 생동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빛낸 공로는 누가가 바울이 갇힌 교도소 소장의 병든 딸을 고치는 장면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로마의 제3군단 사령관 출신으로 마멸틴 감옥의 소장으로 부임한 모리셔스 갈래스(올리비에 마르티네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제임스 펄크너)과 누가(제임스 카비젤)를 지켜보는 사람이다. 바울이 결코 로마에 불을 지를 사람이 아니며 누가 또한 참된 신앙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병든 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행해줄 것을 바라지만 바울은 누가를 존

경반은 의사로 갈래스 교도소장에게 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절에 병 고침의 기적은 어쩌면 로마인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감독은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를 등장시킨다. 사람들은 감독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교도소장의 딸이 병중에서 회복되는 장면과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구경꺼리가 되기 위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정면을 교차 편집함으로써 신앙이 일으키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즉 인간 차대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어둠을 밝혔듯이, 또 다른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인해 로마의 어린 아이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박해 속에 꽃 핀 은혜와 사랑

영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현실과 회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서기 67년 로마는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 로마의 불을 질렀다는 소문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몰래 숨어 살아야 하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인다. 신실한 믿음을 지닌 브리스길라(조앤 윌리)와 아굴라(존 린치)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만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를 탈출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고 만다.

영화는 사도 바울을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면 과연 누가 남아서 이들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전제시킨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한 로마인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장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 담겨있다.



영화 <바울>이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영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 또한 큰 수확이다.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아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의견을 구하고 그의 편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 때 의사 누가가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에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사이를 왕래하며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바울의 신앙여정에 대한 구술을 받아 적음으로 인해 '사도행전'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관객은 목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일은 성서 영화에서는 흔한 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잔혹한 죽음이 이어지는 박해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관객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매우 특별하다. 특히 복수가 스크린에 가득 찬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대사회에서 힘으로 응징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일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Y**

교육관 리모델링 완공



6층 모임방



2층 식당



엘리베이터



4층 모임방



화장실



4층 유아부 예비실



6층 중등부 예비실



5층 초등1부 예비실



4층 유모차 보관장소



복도 음수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권 정 태
(2남 안암3)



김 경 화
(7여 안암11)



김 미 경
(3여 보문2)



김 이 현
(4남 보문1)



박 성 균
(5남 다락방7)



박 영 미
(6여 공릉)



성 달 사
(한나회 보문1)



송 승 리
(6남 다락방7)



송 진 희
(7여 정릉1)



심 매 자
(에스더 대광2)



유 일 균
(3남 용두)



이 귀 순
(2여 수유)



이 윤 정
(7여 다락방1)



지 민 정
(7여 다락방2)



한 옥 희
(6여 보문1)



황 수 진
(청년)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금요일기도회 9-12월 매주 금요일

주니어 다락방 수련회 9월 2일(주)

기도학교 9월 8일(토)-10월 6일(토)

교단 103회 총회 9월 10일(월)-13일(목) 이리신광교회

늘푸른대학 가을학기

9/13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간증과 노래)	이인숙 선생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9/20	노래와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	정서연 강사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이사)
9/27	실버 건강체조	권희자 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10/4	소풍	강원도 춘천

북노회 영유아유치부 종합발표회 9월 13일(토) 상신교회

- 이현우(유치부, 그리기부문 소망상), 유치부(합창, 소망상)

세례 · 입교식 9월 30일(주) 3부 예배시

- 〈세례〉곽유진 김혜진 박상민 박정구 박정준 박화전 임현선 채병용 황정연
- 〈입교〉남윤재 박은빈 윤이소 이지연 임성택 홍용수

성찬식 10월 7일(주) 1-3부, 젊은이, 고등부 예배 시

제 10기 영암부모교육 10월 11일-18일(목, 2주)

- 강사: 백흥영목사(공명교회,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 저자)

추수감사주일 10월 14일(주)

-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2-3부 예배 시

가을특별새벽기도회 10월 22일(월)-27일(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ㄴ9:31)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7일(토)
ㄴ9:6-8	ㄴ9:9-10	ㄴ9:11-15	ㄴ9:16-18	ㄴ9:19-22	ㄴ9:28-31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고난받는 것을 감찰 하시며	하늘에서 부터 말씀 하사	목을 굳게 하여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제 16기 영암아기학교 10월 25일-11월 29일(목, 5주)

모새골 영성훈련 “일상” 10월 30일(화)-11월 2일(금) 양평 모새골공동체

서울북노회 제7회 정기노회 10월 30일(화) 장석교회

청년공동체 명랑운동회 11월 4일(주) 대광고등학교

교회창립63주년기념주일 · 전교인출석주일 11월 11일(주)

2018 사경회 11월 12일(월)-14일(수), 김운성목사(영락교회)

일자	시간	말씀	제목
12일(월)	새벽	창6:1-8	다르게
	저녁	창6:13-22	바보처럼
13일(화)	새벽	창7:6-24	참고
	저녁	창8:1-19	기쁘게
14일(수)	새벽	창9:1-7	균형

다음세대(수험생, 취업준비생)를 위한 기도회 11월 15일(목)

자립화대상교회 방문 제주 제일행복한교회 11월 27일(화)

성탄절등식 11월 28일(수)

2018 대림절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One-Point 통합교재
12월 2-23일 (4주간)

교육관 리모델링 완공감사예식 12월 15일(토) 드림센터 601호

일대일양육 수료식, 예비지도자반 수료식 12월 16일(주) 찬양예배 시

교역자부임 이완희전도사(청년공동체) 정현학전도사(고등부)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